

2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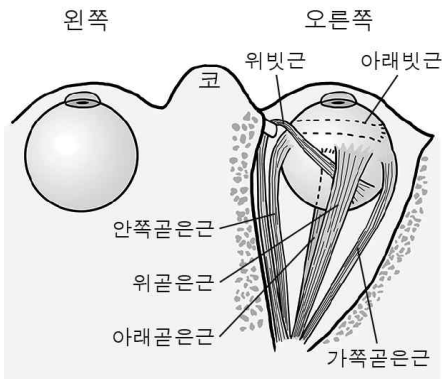
매일 매일 꾸준히!

다 했으면 3일차 달라고 메일주소와 함께 문자주세요~!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옆의 사물을 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눈의 안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물을 ㉠ 선명하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몸이나 머리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눈동자만을 움직여 일정 범위 내의 사물을 바라보거나,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 고정되어 있는 사물을 계속 바라볼 때 안구가 움직여야만 물체의 이미지가 망막의 중심오목*에 안정되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때 안구의 움직임을 ‘안구 운동’이라고 한다.

안구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돌림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그림]에서처럼 머리를 똑바로 하고 정면을 주시하는 경우 눈돌림근육 6개가 1개의 안구를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그런데, 머리나 몸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눈만 위로 치켜뜨게 되면 위곧은근이 수축되고 이에 ㉢ 상응하여 수축된 정도만큼 아래곧은근은 이완된다. 또한 머리나 몸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눈을 흘겨 볼 때, 흘기는 방향과 같은 쪽 눈의 가쪽곧은근이 수축되고 그 수축된 정도만큼 그 눈의 안쪽곧은근은 이완된다.



[그림]

한편 몸이나 머리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머리나 몸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안구가 움직이는데 이를 ‘전정안반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정면에 거울이 있다고 하자. 거울에 비친 얼굴을 ㉣ 응시하면서 고개를 위로 살짝 들어도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고개를 든 각도만큼 안구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전정안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눈돌림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발생하는데, 고개를 위로 들면 전정안반사에 의해 두 눈의 안구의 아래곧은근이 수축되고 수축된 만큼 위곧은근은 이완되는 것이다. 거울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고개를 돌리는 방향과 같은 쪽의 눈은 안쪽곧은근이 수축되고 반대쪽 눈은 가쪽곧은근이 수축된다.

그렇다면 전정안반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먼저 우리 몸의 전정기관*에서 머리나 몸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우리 몸이나 머리가 중력과 나란한 수직 방향이나 지면과 나란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 귓속의 둥근주머니는 수직 방향, 타원주머니는 수평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 감지한다. 또한 귓속 수평반고리관은 머리를 가로저을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전반고리관과 후반고리관은 고개를 끄덕일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감지한다.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정기관에서는 신호가 생성되는데, 생성된 신호는 눈돌림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전달된다. [그림]에서 위빗근은 도르래신경, 가쪽곧은근은 갯돌림신경, 나머지 근육은 눈돌림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흥분 신호는 신경을 통해 눈돌림근육을 수축하게 만들고, 억제 신호는 눈돌림근육을 이완하게 만들면서 안구가 움직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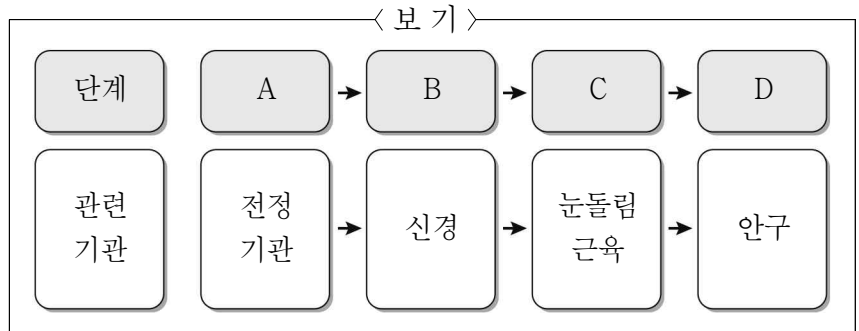
* 중심오목: 망막의 가운데에 있는 누르스름한 반점의 한 부분.

* 전정기관: 속귀에서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기관.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정안반사는 안구 운동 중 하나이다.
- ② 사람의 한쪽 눈에는 6개의 눈돌림근육이 있다.
- ③ 사람이 움직이며 고정된 사물을 바라볼 때 전정안반사가 나타난다.
- ④ 타원주머니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 ⑤ 수평반고리관과 전반고리관이 감지하는 머리의 운동 방향은 동일하다.

2. <보기>는 ‘전정안반사’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단계에서 흥분 신호가 생성된다면, C 단계에서는 눈돌림근육 중 일부가 수축되겠군.
- ② 몸이나 머리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A 단계에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전정기관은 둥근주머니이겠군.
- ③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인다면, A 단계에서 흥분 신호와 억제 신호가 생성되어 B 단계의 신경에 전달되겠군.
- ④ 머리를 아래로 숙이면, C 단계에서 아래곧은근이 수축하여 D 단계에서 물체의 상이 망막의 중심오목에 맺힐 수 있겠군.
- ⑤ C 단계에서 위빗근이 작용하여 D 단계의 안구 운동이 발생했다면, 도르래신경이 전정기관으로부터 신호를 전달받았겠군.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그림과 같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정면의 눈높이에 있는 작은 공을 계속 보면서 머리를 화살표가 가리키는 수평 방향으로 약간 회전하였을 때, 오른쪽 눈에서는 (㉠)이 수축을 하고, (㉡)이 이완을 하며, 왼쪽 눈에서는 (㉢)이 수축을 하고 (㉣)이 이완한다.

(단, 오른쪽과 왼쪽의 기준은 의자에 앉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 | | ㉠ | ㉡ | ㉢ | ㉣ |
|---|-------|-------|-------|-------|
| ①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 ②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 ③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 ④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 ⑤ | 가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4. ㉠~㉤의 사전적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산뜻하고 뚜렷하여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아니하게
- ② ㉡: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되어
- ③ ㉢: 서로 응하거나 어울리어
- ④ ㉣: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 ⑤ ㉤: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린다

국어 영역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시대에 자연을 노래한 시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시가(四時歌)는 일반적으로 사계절의 순서에 따른 완상을 담은 노래들을 뜻한다. 고려 중기 이후 사대부층 사이에서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었는데, 사시가는 이러한 관심과 중국 한시 및 고려 한시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시가는 1년을 열두 달로 나누어 각 달의 세시 풍속이나 정서 등을 노래한 월령체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월령체가는 주로 민요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사시가는 한시나 가사, 연시조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히 각 연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연시조는 사시의 흐름을 담아내기에 적합했다.

일반적으로 사시는 사계절로 인식된다. 그러나 시간 인식의 기준에 따라 사시는 한 달의 네 때인 삭(朔), 현(弦), 망(望), 회(晦)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하루의 네 때인 아침, 낮, 저녁, 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초기의 사시가는 주로 사계절을 나열하는 단조로운 시상 전개를 보인다. 그러나 중기 이후의 사시가는 일년 사시와 하루 사시의 복합적인 구성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즉 ‘[춘(아침→낮→저녁→밤)]→[하(아침→낮→저녁→밤)]...’과 같이 일년 사시의 흐름 속에서 각 계절마다 하루의 사시를 모두 포함하거나, ‘[춘:아침]→[하:낮]→[추:저녁]→[동:밤]’과 같이 일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된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기도 하는 것이다.

시상 전개 양상이 단순하든 복잡하든 사시의 흐름은 순차성을 띠면서도 의미상 겨울에서 봄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작품에 따라 순환성이 표면에 부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순환성에 대한 인식은 시간적 영원성에 대한 소망, 즉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무한을 추구하려는 소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적 영원성에 대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인간은 이상향을 지향하게 되는데 사시가에 서 자연은 이러한 이상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시가에서 나타나는 이상향으로서 자연의 모습은 당대의 현실이나 작가의 삶과 관련되어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즉 속세와 단절되어 은자(隱者)로서의 삶을 누리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속세와 단절되지 않은 연장선상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작가가 벼슬에서 은퇴한 사대부이든 정치 흐름에서 도태되어 자연으로 돌아온 사대부이든 향촌에서 농민과 함께하던 사족(士族)이든 자연을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런 점에서 사시가는 사시 순환의 질서 속에서 자연을 심미의 대상, 소박한 삶의 공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 등으로 인지하고 그 속에 자신의 생활을 합치시키고자 하는 ㉠ 사대부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A]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홀리 띄워 던져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추(秋)> -

가령, 사시가 계열 연시조의 첫 작품인 위 시조의 경우 벼슬에서 물러난 작가가 강호 자연에서 계절별로 느끼는 흥취와 여유로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자연은 유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하다
나는 그물 잡고 아희는 밧줄 가니
뒗 피히 움이 튼 약초를 언지 캐려 흥느니 <1수>

샷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중(細雨中)에 호미 메고
산전(山田)을 훑매다가 녹음(綠陰)에 누어시니
목동이 우양(牛羊)을 모라다가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 <2수>

대초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뿔드르며
벼 벤 그루터기에 게논 어이 느리논고
술 닉자 체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3수>

피혀는 새가 굶고 들혀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빈에 샷갓 쓴 저 ㉡ 늪은이
낙덕에 재미가 김도다 눈 김픈 줄 아는가 <4수>

- 황희, 「사시가(四時歌)」 -

(다)

양파(陽坡)*에 풀이 기니 봄 빗치 느껴 있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 비에 다 되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먹여 논밭 갈게 흥야라 <춘(春)2>

잔화(殘花) 다 딴 후의 녹음(綠陰)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둑의 소리로다
아히야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켜오자 <하(夏)1>

흰 이슬 서리 되니 그을히 느껴 있다
긴 들 황운(黃雲)이 흰 빛이 피었구나
아히야 비준 술 걸러라 추흥(秋興) 계워 흥노라 <추(秋)1>

북풍(北風)이 노피 부니 앞 피히 눈이 던다
모참(茅簷) 찬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콩죽 니것느냐 먹고 자려 흥로라 <동(冬)1>

이바 ㉢ 아희들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현스한 세월(歲月)이 소년(少年) 앓아 가느니라
우리도 새해 즐겨흥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석(除夕)1>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양파(陽坡): 양지쪽 언덕.

5.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시의 순환성은 무한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 ② 유기적인 구조를 지닌 연시조는 사시의 흐름을 담아내기에 적합하다.
- ③ 사시가는 조선 시대 이전의 다른 문학 장르에서 영향을 받았다.
- ④ 사시가와 월령체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을 취한다.
- ⑤ 사시가는 열두 달의 세시 풍속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국어 영역

6. (나), (다)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르는 말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고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승 이미지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7.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1수>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을 직접 명시하고 나머지 수에서는 계절을 짐작하게 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일 년의 사시를 드러내고 있군.
- ② (나)에서 <1수>부터 <4수>에 걸쳐 일 년 사시만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 초기 사시의 단조로운 시상 전개 방식을 엿볼 수 있군.
- ③ (다)의 <하1>에서는 ‘녹음’과 ‘낮둠’을 통해 여름날 낮의 이미지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다)의 <춘2>와 <동1> 각 수에서는 한 계절 안에 하루의 사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복합적 시상 전개 방식을 엿볼 수 있군.
- ⑤ (다)의 <제석1>에서는 ‘새해’가 음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자연의 순환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8. ㉠에 주목하여 [A]와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고기마다 살져 있다’에는 풍요로운 자연에 대한 사대부층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 ② [A]에서 ‘역군은(亦君恩)이샀다’에는 자연을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 바라보는 사대부층의 인식이 드러난다.
- ③ (나)에서 ‘그물 낚고’, ‘산전을 훑매’는 모습에는 자연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으로 인지하는 사대부층의 관점이 나타난다.
- ④ (다)에서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씌오자’에는 자연에서 여유로움을 느끼는 사대부층의 생각이 드러난다.
- ⑤ (다)에서 ‘비즌 술 걸러라’에는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사대부층의 생각이 나타난다.

9.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화자와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대상이다.
- ② ㉠과 ㉡는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는 대상이다.
- ③ ㉠과 ㉡는 모두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대상이고 ㉡는 화자에게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대상이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강씨 상서가 집에 없음을 기뻐하여 월을 불러 날로 구박하며 눈앞에 잠시도 섰지 못하게 하고, ㉠ 음식을 먹이되 독약이 들지 아니하였으니 알고 먹으라 하며 박대가 자심한지라.

강씨 일일은 월의 없음을 괴히 여겨 후원에 가보니 차영을 데리고 서로 우는지라. 대로하여 고성 대책 왈,

“너희 노주*가 무슨 모함을 의논하느냐.”

하고, 무수히 치며 두 발을 끌고 의복을 찢으며 형벌하고, 또 차영을 잡아내어 꾸짖어 왈,

“네 나와 무슨 혐의 있어 노주 의논하고 흥계를 꾸미고자 하느냐. 너 같은 녀은 죽이리라.”

하고 형구 차려 형틀에 올려 매고 무수 난장하여 제정으로 끌어내어 협실에 가두고 분부하되,

“너희 다시 소저와 상대하는 자는 즉시 죽이리라.”

하니, 차영이 또한 기절하여 아무 말도 못하더라.

슬프다. 월이 차영을 보지 못하고 죽인들 뉘가 알며, 음식인들 뉘가 권하리오.

이때 용이 제 밥을 가지고 누이 앞에 놓고 간권하니, 소저가 어찌 먹고 살고져 하리오마는 어린 동생이 원하는 정을 생각하고, 또 부친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원귀 되지 아니하며, 또한 부친으로 하여금 비회를 끼쳐 눈물을 지시게 하리오. 나의 사생은 어렵지 아니하거니와 용의 일신이 부모에게 중한 몸이라. 내 죽으면 여액이 다 용에게 미칠 것이니 어찌하리오. 또한 내 죽으면 불효막대할 것이니, 근근 보명하였다가 부친 오심을 기다림이 옳다 하고, 용이 가져온 음식을 서로 먹고 밤을 당하매, 불기 없는 빈방에 남매 서로 붙잡고 밤을 새우더니, 용은 어린 것이라 잠을 자나 소저는 만신이 아파 견디지 못하여 소리는 아니하고 앓고 누웠더니, 이때 강씨 생각하되

㉡ “이때를 지내면 다시 설치*할 기회를 얻기 어려우리라.”

하고 월의 자는 방에 들어가니, 소저가 홀로 엎어져 앓는 소리 나거늘 문을 열고 들어가 꾸짖어 왈,

“이 아이년아, 누구를 모함하려고 누웠느냐. 너 같은 자식은 보기 싫으니 바빠 나가고 눈앞에 보이지 말라.”

하는 소리 추상같은지라.

[중략 줄거리] 강씨의 구박으로 어룡 남매는 집에서 쫓겨나 온갖 고초를 겪는다. 이후 어룡은 통천도사의 도움으로 도술과 무예를 배워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월은 윤 시랑의 양녀가 되어 임선과 결혼한다. 한편, 어룡 남매를 찾아 집을 나섰던 상서는 기이한 꿈을 꾀다.

이때 날이 이미 저물고 갈 길이 바야 없으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실혼한 사람같이 앓았더니, 또 비몽사몽간에 아까 보이던 도사가 다시 이르되,

“죽림 도원 본집으로 가면 자연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이니 급히 황성으로 가라.”

하고 간 데 없거늘, 상서가 깨어 공중을 향하여 무수 사례한 후, 그 밤을 지내고 이튿날 길을 떠나 여러 날 만에 죽림 도원 ㉠ 문집으로 가니, 집은 여구하나 장원이 퇴락하고 후뜰에 초목이 무성하여 사람 자취 그친 지 오랜지라.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여 눈물 내림을 깨닫지 못할레라.

학사 마음을 진정하고 두루 살펴보니 노복 등도 다 사냥하고 다만 차영이 홀로 있다가 상서를 보고 반겨 복지 통곡 왈,

국어 영역

“노야 어디로 다니다가 이제 오시니까.”
하며 못내 슬피하다가, 다시 여쭙오되,
“소저와 아기 용을 찾아 보아 계시니까.”
하며 반감을 마지 아니하거늘, 상서가 차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왈,
“차영아, 그간 몸 성히 잘 있었느냐. 난 여러 해 돌아다니되 월의 남매를 보지 못하고 왔노라.”
하시니, 차영이 상서 말씀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이윽히 앓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왈,
“그러하오면 어디로 가 죽었는가 아닌가. 진적 유무를 알 수 없으니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사오리까. 노야 나가신 후에 나라에서 한림으로 패소*하여 계시오니, 황성에나 올라가사 소저와 공자를 찾게 하옵소서.”
하거늘, 상서가 내심에 현몽하시던 일을 생각하고 황명을 반자와 택일 발행할새, 여러 날 만에 ㉞ 황정에 득달하여 천자에게 숙배하온대, 상이 보시고 크게 반기사 좌를 주시고 가로되,
“경의 아들이 멀리 집을 떠난단 말을 들었더니 그간 만나 보았는가.”
하시거늘, 상서가 복지 주왈,
“소신의 불초한 자식이 있사옵더니, 나이 어려 우연 집을 떠나 나아가 우금 십여 년이 되옵되 종적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슬픈 빛이 나타나거늘, 상이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가라사대,
㉞ “금번 북흉노 병란에 경의 아들 곧 아니어던 종묘와 사직이 위태하고 짐의 몸이 마칠 것을 하늘이 도우사 경의 영자를 만나 북적을 소멸하고 천하를 평정하였으니, 그 공을 무엇으로 갚으리오.”
하시고, 좌승상 어룡을 급히 명초*하시니, 이때 승상이 부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전지도지*하여 나오더니, ㉞ 나라에서 부르심을 듣고 급히 예궐 숙배하온대, 상이 인견하시고 가라사대,
“지금 경의 부친을 대하면 그 얼굴을 능히 기억할소냐.”
승상이 대왈,
“어려서 아버지를 이별하였사오나 지금도 그 형용이 주야 눈에 있나이다.”
하고 설위함을 마지 아니하거늘, 상이 그 사친지정이 절로 골수에 맺힘을 불쌍이 여기시고, 상서와 대면케 하시니, ㉞ 승상이 부친 앞에 나아가 엎어져 실성 통곡하며 말을 이루지 못하거늘, 한림이 혼미하여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치 못하고 묵묵히 앓았다가, 이윽한 후 정신을 차려 용의 손을 잡고 가로되,
“네가 진정 나의 아들 용이냐 아니냐.”
하며 안고 서로 슬피 우니, 보는 사람은 고사하고 산천초목도 다 슬퍼할러라.

- 작자 미상, 「어룡전」 -

* 노주: 노비와 주인. * 설치: 치욕을 씻음.
* 패소: 임금이 신하를 급히 만나야 할 때 패를 써서 입궐하게 하는 경우.
* 명초: 임금의 명령으로 신하를 부름.
* 전지도지: 엎드러지고 곱드러지며 몹시 급히 달려가는 모양.

10.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의 행적을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㉞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룡전’은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갈등을 다룬 계모형 가정 소설이다. 계모의 일방적인 구박과 횡포로 고통을 받던 전처 자식들은 가장이 부재한 시기에 가정에서 쫓겨난다. 이후 주인공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출세함으로써 가족과 재회하고 가정을 회복한다. ‘어룡전’의 특이한 점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군담 화소가 계모형 가정 소설에 결합되어 서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 ㉠ ㉠: 전처 자식에 대해 계모의 일방적인 구박과 횡포가 가해졌음을 알 수 있군.
- ㉡ ㉡: 가장이 부재한 시기를 틈타 전처 자식을 쫓아내려는 계모의 의도를 알 수 있군.
- ㉢ ㉢: 국가의 위기 상황이 주인공에게 출세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 ㉣: 주인공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는 군담의 화소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 ㉤: 주인공이 헤어졌던 아버지와 재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군.

1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달리 ㉡는 ‘상서’가 기대감을 갖고 향하는 공간이다.
 - ② ㉠와 달리 ㉡는 ‘상서’가 권위자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③ ㉠와 달리 ㉡는 ‘상서’가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벗어나는 공간이다.
 - ④ ㉠와 ㉡는 모두 ‘상서’가 타인에게서 정보를 제공받는 공간이다.
 - ⑤ ㉠와 ㉡는 모두 ‘상서’가 타인에게 비판적으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⑤④③⑤⑤
②④②③⑤
④④

해설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4문단의 ‘수평반고리관은 머리를 가로저을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전반고리관과 후반고리관은 고개를 끄덕일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감지한다.’에서 수평반고리관과 전반고리관이 감지하는 머리의 운동 방향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안구의 움직임’을 ‘안구 운동’이라고 한다.’와 3문단의 ‘안구가 움직이는데 이를 ‘전정안반사’라고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의 ‘눈돌림근육 6개가 1개의 안구를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의 ‘몸이나 머리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 이를 ‘전정안반사’라고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의 ‘타원주머니는 수평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감지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내용 추론하기

3문단의 ‘고개를 위로 들면 전정안반사에 의해 두 눈의 안구의 아래곶은근이 수축되고 수축된 만큼 위곶은근은 이완되는 것이다.’에서 머리를 아래로 숙이면 C단계에서 아래곶은근이 아닌 위곶은근이 수축됨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의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정기관에서는 신호가 생성되는데’와 ‘흥분 신호는 신경을 통해 눈돌림근육을 수축하게 만들고’에서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의 ‘우리 몸이나 머리가 중력과 나란한 수직 방향이나 지면과 나란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 귓속의 등근주머니는 수직 방향, ~ 감지한다.’와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정기관에서는 신호가 생성되는데’에서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의 ‘전반고리관과 후반고리관은 고개를 끄덕일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감지한다.’와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정기관에서는 신호가 생성되는데, ~ 신경에 전달된다.’에서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정기관에서는 신호가 생성되는데’와 ‘위빋근은 도르래신경, ~ 안구가 움직이게 된다.’에서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의 ‘고개를 위로 들면 전정안반사에 의해 두 눈의 안구의 아래곶은근이 수축되고 수축된 만큼 위곶은근은 이완되는 것이다.’와 ‘거울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고개를 돌리는 방향과 같은 쪽의 눈은 안쪽곶은근이 수축되고 반대쪽 눈은 가쪽곶은근이 수축된다.’에서 눈에서의 눈돌림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보기>의 사례는 머리를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오른쪽 눈에서는 안쪽곶은근이 수축을 하고 가쪽곶은근이 이완을 하며, 왼쪽 눈에서는 가쪽곶은근이 수축을 하고 안쪽곶은근이 이완한다.

4.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감지하다’는 ‘느끼어 알다.’라는 의미이고,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린다.’는 ‘포착하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5.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1문단의 ‘사시가는 일반적으로~노래를 뜻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이러한 순환성에 대한 인식은~소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의 마지막 부분 ‘특히 각 연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연시조는~적합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의 ‘사시가는~고려 한시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유사한 측면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찾기

(나)의 <2수>에서 ‘깨우는구나’, <4수>에서 ‘깃도다’와 (다)의 <추1>에서 ‘피었구나’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나)에는 부르는 말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 (다)에는 상충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나), (다)에는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 (다)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작품의 형식 파악하기

(다)의 <춘2>와 <동1>에서는 봄과 겨울이라는 일 년 사시가 드러나지만 그 안에 하루의 사시인 아침, 낮, 저녁, 밤이 모두 포함된 형식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1수>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을 밝히고 있고 <2수>에서는 ‘녹음’을 통해 여름을, <3수>에서는 ‘벼 벤 그루터기’를 통해 가을을, <4수>에서는 ‘눈’을 통해 겨울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가)의 2문단에 제시된 ‘일 년 사시’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는 일 년 사시인 사계절만을 나열하고 있고, 이는 (가)의 2문단에서 ‘초기의 사시가는 주로 사계절을 나열하는 단조로운 시상 전개를 보인다.’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③ (다)의 <하1>에서 ‘녹음’에서 여름의 이미지를, ‘낮둣’에서 낮의 이미지를 알 수 있고, 이는 (가)의 2문단에서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된 방식’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⑤ (다)의 <계서1>에서는 ‘새해 온다’를 통해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됨을 언급하고 있고, 이는 (가)의 3문단에서 ‘사시의 흐름은 순차성을 띠면서도~작품에 따라 순환성이 표면에 부각되기도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작품 감상하기

[A]의 ‘역군은이샷다’에서 자연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사대부층의 의식이 드러나 있어 자연을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의 ‘고기마다 살져 있다’에서 가을의 풍요로움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그물 깃고’, ‘산전을 훑매’는 것은 노동의 모습으로, 자연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인지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다)의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씨오자’에서 긴 잠을 자고 일어나 고자 노래를 청하는 여유로운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다)의 ‘비즌 술 걸러라’에서 술을 마시며 가을의 흥취를 즐기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대상의 의미 파악하기

㉔는 ‘낙뒤에 재미가 깃도다’를 통해, ㉕는 ‘새해 온다 즐겨 마라’라는 화자의 충고를 통해 모두 현재의 상황에 즐거움을 느끼는 대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㉔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는 대상으로 화자와 상반된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㉕는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㉔는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㉔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인물의 성격 변화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슬프다. 월이 차영을 보지 못하고 죽인들 뉘가 알며’와 ‘이윽한 이후~안고 서로 슬피 우니, 보는 사람은 고사하고 산천초목도 다 슬퍼할러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상’의 말인 ‘금번 복흥노 병란에~복적을 소멸하고 천하를 평정하였으니’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집은 여구하나~눈물 내림을 깨닫지 못할레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비몽사몽간에~하고 간 데 없거늘’에서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 감상하기

‘승상’이 ‘상’의 부름을 받고 급히 대궐에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주인공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는 군담 화소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은 ‘강씨’가 ‘월’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독약이 들지 아니하였으니 알고 먹으라고 박대하는 장면이므로 적절하다. ② ㉔은 ‘강씨’가 이때를 기회삼아 ‘월’과 ‘용’을 내쫓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인데, 이 시기는 상서가 집에 없는 때이므로 적절하다. ③ ㉔은 ‘상’이 ‘상서’에게 ‘용’이 복흥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자신을 구했다고 말하는 부분이므로 국가의 위기 상황이 주인공에게 출세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㉔은 ‘승상’이 부친인 ‘상서’와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므로 주인공이 헤어졌던 아버지와 재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이해하기

‘상서’는 ‘본집(㉔)’에서는 ‘차영’에게 나라에서 한림으로 패소하여 계시다는 정보를 듣고, ‘황성(㉕)’에서는 ‘상’에게 ‘어룡’이 나라를 구했다는 정보를 듣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상서’는 ‘죽림 도원 본집으로 가면 자연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본집(㉔)’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황성(㉕)’에서 ‘상서’가 권위자인 ‘상’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본집(㉔)’에서 ‘상서’가 지혜를 발휘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본집(㉔)’과 ‘황성(㉕)’에서 ‘상서’가 타인에게 비판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